

신차효과 올 상반기 자동차 32만대 증가

6월말 현재 총 등록대수 1천8백26만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연)는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1천8백26만대(자동차 1대당 인구수 : 2.77명)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6월말 현재 차종·용도·지역·차령별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차종별의 경우 승용 1,395만대(76.4%), 승합 104만대(5.7%), 화물 322만대(17.7%), 특수 5만7천대(0.3%) 이

며 용도별로는 자가용 1,720만대(94.2%), 영업용 99만대(5.4%), 관용 7만대(0.4%)이고, 자가용승용차만 보면 1,342만대로 전체 자동차의 73.5%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427만대(23.4%), 서울 300만대(16.4%), 경남 142만대(7.8%)의 순이며,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821만대로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수입차 총 등록대수는 568,859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3.1%이다.

이번 발표에 의하면 자동차등록대수가 지난해 12월말에 비해 올해 상반기 동안 약 32만1천대(321,617) 증가했다. 이는 작년 동기증가대수 약 32만2천대(322,589대)에 비해 0.3%가 감소한 것이나, 잠재대체 수요 확대, 제작사의 신차 출시 및 신규 브랜드(쉐보레) 도입 등의 효과로 올해 상반기 동안 신규등록대수(85만대)는 전년 동기(75만대)에

비해 12.8% 증가했다. 말소등록대수도 52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해, 올해 상반기 전체 증가대수는 작년보다 감소(0.3%)했다. 수입차의 경우도 올해 상반기에 50,537대가 증가(9.8%)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신규등록대수 : 55,653대)

이 같은 각종 자동차 등록현황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누리(<http://stat.mltm.go.kr> "자동차등록현황보고")에서 매 일 확인할 수 있다.

민간항공기1951년 도입이후 현재 532대 등록

비행기 356대, 헬리콥터 174대, 활공기 2대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 민간항공기가 1951년 최초 등록 이래 매년 약 9대씩 증가해 6월말 현재 총 532대가 등록됐다고 밝혔다.

항공기의 종류·용도별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종류별로는 비행기 356대(66.9%), 헬리콥터 174대(32.7%) 및 엔진이 없는 활공기 2대(0.4%)로 각각 등록됐다.

용도별로는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사업용 237대(44.5%), 소형항공운송사업용 18대(3.4%), 항공기사업용 항공기 127대(23.9%)가

운용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및 산림청 등 국가기관, 보도기관, 교육기관 및 일반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상업용항공기는 150대로 전체 등록항공기의 28.2%를 차지하고 있다.

국적 항공사의 항공기 보유현황을 보면 대한항공 136대, 아시아나항공 72대, 제주항공 8대, 에어부산 7대, 이스타항공 6대, 진에어 5대, 티웨이항공 3대 등 총 237대이다.

국적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를 제작사별로 살펴보면, 미국 보잉사 제작 항공기가 B777계열 41대

등 166대로 70%를 차지하고, 프랑스 에어버스사 제작 항공기는 A330계열 33대 등 71대로 30%를 차지하고 있다. 국적 항공사의 항공기 평균 기령은 9.9년으로 세계의 주요 항공사 평균 기령보다 낮은 수준이며, 10년 미만 항공기가 266대로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등록지역을 보면 수도권에 322대(60.5%), 충청권에 72대(13.5%), 영남권에 70대(13.2%), 제주도에 32대(6.0%), 호남권에 24대(4.5%), 강원도에 12대(2.3%)가 등록됐다.

한·일 고속철도 전노선개통 기념투어 진행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관광개발(대표이사 길기연·사진 왼쪽 네번째)은 지난 7일 서울역 3층 맞이방에서 '한일 고속철도 전노선개통 기념투어 서울역 환영기념식'을 진행했다.

코레일과 코레일관광개발, JR큐슈여객철도가 주최한 '한일 고속철도 전노선개통 기념투어 서울역 환영기념식'은 한국의 KTX경부선 안전개통(2010년 11월 1일)과 일본의 류슈신칸센 전선개통(2011년 3월 12일)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JR큐슈의 하카다역장과 구마모토역장, 가고시마중앙역장 및 류슈 각 지역 현의 관광업무 담당 관계자를 비롯해 한



국의 서울역장과 부산역장이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3월 12일 전선개통된 신칸센을 이용하여 일본 가고시마역에서부터 구마모토역까지, 구마모토역에서부터 하카다역까지, 그리고 비틀을 이용해 한국의

부산역으로, KTX를 이용해 부산역에서 서울역까지 오는 기념투어로 진행됐다.

서울역 3층 맞이방에서 진행된 '한일 고속철도 전노선개통 기념투어 서울역 환영기념식'은 코레일관광개발 길기연대표와 서울역장의

환영인사를 비롯해 환영 세레모니인 '오리엔탈 퓨전국악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지난 2006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일본과 러시아 중국과 국제 철도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해왔다.

JR큐슈여객철도에는 올해 1월부터 전반적인 여행상품의 전략적 사업 제휴를 맺고 적극적인 한일철도 여행상품개발에 주력해오고 있다.

코레일관광개발의 길기연 대표이사는 "세계 최고의 철도 선진국인 일본과 한국이 양국의 고속철도를 이용해 일본의 가고시마역에서부터 한국의 서울역까지 원스탑으로 7시간만에 을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양국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물 위를 달려라!

전국 유일 수중 마라톤 '황강수중마라톤대회' 개최



강물 위를 횡단하는 수중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 경남합천군은 '제16회 황강수중마라톤대회'를 오는 31

일 황강레포츠공원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황강수중마라톤대회'는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황강레포츠축제>의 대표급 행사로, 국내에서는 합천에서만 열리는 전국 유일의 수중 마라톤대회이다. 전국 각

지의 레포츠 동호인과 외국인의 참가가 늘면서 합천의 대표적 여름 축제로 각광받고 있다. 초청 1급수를 자랑하는 황강의 맑

은 물과 은빛 모래사장에서 펼쳐지는 이 대회에는 무더위를 날리는 즐거움을 만끽하려는 마라톤러들이 매년 2,000명 이상 모여든다. 수천 명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질주하는 모습이 장관을 연출한다.

올해 황강수중마라톤 대회는 7월 3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열리며, 2km, 5km, 10km 등 총 3개 코스가 마련됐다. 2km 부문은 신체 건강한 남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5km와 10km 부문은 만 13세 이상 참가할 수 있다.

문의 : 055-930-3877

제2회 「건설근로자 땀과 보람, 그 행복한 동행」 사진공모전 당선작 발표!

금상 김태운씨 등 20점에 수상의 영예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강팔문)가 주최하고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경제신문, 건설경제신문이 후원하는 제2회 「건설근로자의 땀과 보람, 그 행복한 동행」 사진공모전의 당선작 20점이 발표됐다.

이번 사진공모전은 건설근로자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 직업인이라는 인식전환과 더불어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

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되었다. 지난 4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2개월간 접수가 진행된 공모전은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는 건설근로자의 모습을 담은 사진으로써, 건설근로자의 보람 또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모습 등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작품을 공모, 총 183점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최종심사결과, 총 20점의 작품에 수상의 영예가 돌아

갔다. 본 공모전의 최고 우수작인 금상은 "도색 작업"이라는 제목으로 출품한 김태운씨(광주광역시 북구, 57세)가 선정되었다. 입상작은 오는 11월 22일에 개최되는 "2011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 당일 전시회 개최 및 사진집으로 제작·배포 예정이며, 금상 수상자에게는 국토해양부장관상과 부상으로 상금 200만원이 수여되며, 시상 내역별로 각각 상장과 상금을 받게 된다. 한편, 공모전을 주최한 건설근로자공제회 강팔문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건설근로자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건설기능인의 날(매년 11월 22일)의 부대행사로써, 건설현장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면서, 수상작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진 전문가 등의 부위원 위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덧붙였다.

수상작은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사진공모전 공식카페 (cafe.naver.com/cwmaphoto) 또는 공제회 복지사업팀(02-519-2102~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발전계획 마련 위한 직원 워크숍 개최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김경수)은 지난 8일 공단의 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전 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외부강연, 주제별 분임토의 및 발표 등으로 진행됐으며,

임직원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제3차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연구 및 고객만족도 제고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공단은 지난 2010년 10월 4일에도 전사 워크숍을 개최하여 공단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조직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기관장의 공단운영의 핵심가치(3C 운동)로 설정하고 지속추진 중이다.

건설교통신문 | 1988년 10월 17일 창간

1988년 4월 20일 등록번호 다 - 520호(週刊)

회장·발행인 / 박영규 편집인 / 진영섭 주필 / 이명우 편집국장 / 양노홍 인쇄인 / 김준배

140 - 011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303 - 2 대표전화 (02) - 792 - 9252 FAX (02) - 796 - 8296

편집국 (02)792 - 9252 교통팀 (02)792 - 9254 건설팀 (02)792 - 9253
관광팀 (02)792 - 9252 광고접수 (02)792 - 9255 광고신청 (02)792 - 9252

THE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NEWS

“축, 전국용달연합회 창립 제19주년”

우리 용달운송업계는 신속 정확한 책임운송 및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고, 공익사업자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물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회장 박종수

회장	부회장	=	=	이사	=	=	=	=	=	=	=	=	=	감사	=	상무이사
박종수	조재권	강성운	반기환	성완제	조동남	김원해	최성규	조영희	김광태	이정락	정평조	김근수	문재언	김봉기	김종립	심연태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